

<論說>

防災를 위한 土木人の 姿勢

강 관 원*

防災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河川은 물론 交通, 農業等 分野에서 積極的으로 推進되어 왔다. 最近 土木構造物의 破壞等으로 住民의 災害가 자주 일어나 土木人으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防災에는 具體的으로는 堤防 댐과 같은 直接的인 構造物에 의한 方法과 水防, 避難等으로 洪水에 對處하는 非構造物의인 것을 들 수 있다. 前者가 크게 發展하면서 非構造的인 自主防災組織까지 생기게 되었다. 住民은 災害의 當事者 또는 利害者이며 많은 경우 災害의 第1 발견자이다. 그 地方에 精通하는等 防災의 主役이 아닐 수 없다. 法令이나 補助金 技術基準이 있다고 해서 防災가 되는 것은 아니다.

土木構造物은 基準化 規格化 最適化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벼운 制約下에서 最低價格을 基準으로 工事推進이 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必要條件은 겨우 充足되지만 充分條件은 좀처럼 미치지 못한다. 例로 初期 橋梁은 木橋로서 必要條件은 充足시켜 왔으나 洪水 水災等 災害時에 安全하도록 鋼橋 또는 콘크리트橋로 耐久的인 것으로 變해왔다. 더욱 오늘의 橋梁은 環境 造景 景觀等的 價値意識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土木構造物이라면 大體로 그 機能이 單純하지만 그 規模가 큰것이 보통이다. 構造物設計가 되면 그것이 바로 形態로 나타나지만 그 逆으로도 決定되는 수도 있으므로 構造物의 計劃이 重要한 것이다.

土木構造物은 사람들이 直接 접하고 利用하는 것이 많다. 即 댐, 水門, 橋梁, 파라펜, 階段, 舗裝等 수많은 것이 組合되어 있다. 이들이 組合되므로서의 全體나 部分이나. 또 그 個體에 있어서도 ละเอียด하게 다듬어

져야 한다. 마치 女性의 의상과도 같이 먼데서나 가까운데서나 훌륭해야 한다.

土木構造物은 많은 경우(?) 自己完結이 不足하다. 周圍와의 調和, 個體間的 結合 넓게는 公共空間에서 그 機能體系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複合體일 경우 그 連結接合部와 相互關係에 留意하지 않으면 그 個體 또는 部分體로서는 優秀하지만 國民的인 好評은 얻지 못한다. 即 最後의 마무리와 調和가 必要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再認識해야 할것 같다. 即 土木工事는 規模가 크니까 그럴수 있다는 觀念을 버려야 하고 土木事業(工事)은 公共性을 認識하고 問題意識을 갖일 것이며 이들을 배우고 研究하여 評價考察하면서 뒤야 나가는 姿勢가 必要하다.

한편 土木事業은 그 全體面에서 볼때 部, 局間的 區分이 애매하여 行政公機關, 私企業間에도 關聯되므로 그 調節에 많은 努力이 필요하며 그 成果는 努力에 비해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다.

防災強化에는 特히 土木人 모두가 最善을 다 하자는 것이 本論의 취지이다.

土木人은 職場에서 防災職務에 從事하는 경우가 많다. 業界도 緊急時에는 防災에 積極的이어야 하며 義務를 갖지 않는 土木人은 그 集團의 指導者를 補左하도록 해야 한다. 土木人은 적어도 물과 흙과 나무(材料)에 대해 一可見이 있기 때문이다. 災害時에 各集團에서 適當히 대응하는 것은 全體的으로 被害를 最小限으로 줄이는 것이 되며 늘 土木人에 이와 같은 行動은 모든 國民에게 好感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仁荷大 工大 教授 工博